우리꽃 소식지는 고객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배포합니다. 이 내용 사진자료는 무단복제, 배포를 금합니다.

12 우리넷

www.uriseed.com

Vol. 3

등록번호 : 경기이00107 등록일 : 2006년 8월 7일 발행일 : 2008. 2. 1 간행 : 격월간 발행인 : 박광영 편집인 : 박광영 발행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송곡리 696 발행처 : 우리꽃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율현동 196-82 TEL : 02)3412-1281~2 FAX : 02)3412-1283

암울하게 먹구름이 뒤덮은 겨울 풍경 독일, 에센의 겨울 날씨는 바람과 함께 비까지 내려 더 을씨년스러웠다. 그러나 세계적인 농업원예박람회가 있는 에센의 박람회장 분위기는 밖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세계농업, 원예, 조경, 플로리스트들의 트렌드가 살아 움직이는 현장이었다.

IPM은 공식적으로 26년 전통의 세계에서 가장 큰 원예, 화훼장식(플로리스트) 그린 국제 박람회이다. IPM은 국가 기관인 독일 플로리스틱 협회(FDF)가 원예 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원예와 플로리스틱의 매년 미래적 경향성과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IPM이 세계적인 관심을 받게 되고 전 세계의 농업, 원예, 조경, 플로리스트, 설계사, 디자이너 그리고 유통에 물류회사까지 참여하는 행사가 되어 현재와 미래의 농업, 원예, 조경 등의 트렌트를 읽을 수 있는 행사가 되었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에센 농업원예 박람회

수십만평의 육묘장을 경영하는 대농에서부터 작은 아이템을 생산하는 액세서리 제조업을 하는 회사들까지 1,400여 업체가 출품하고 60,000여 명이 참관하는 대규모 식물관련 박람회에서 느끼는 관전 포인트는 '경쟁력' 이었다.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양인들을 보면 결격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한다. 이유는 주로 한국, 일본사람들이 자기들이 노력해서 개발한 품종을 몇 개 구입해 가져가 연신히 증식하여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시장에 내다 팔아 결과적으로는 자신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본인으로 인식되던 동양인들이 지나간 자리는 식물이 없어지거나 훼손당하는 사례가 많았으니 그도 그럴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많이 변했다. 이제는 동양인을 만나면 자신들의 상품을 소개 하고 선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이유는 일본이 시장이 개방되면서 법적인 보호를 받고 품종보호를 받는 길이 당연시 되었고 많은 중국인들의 시장 싹쓸이의 결과 이제는 동양인이 큰 고객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럽의 원예시장에는 안내표기가 일본어 혹은 중국어로 친절(?)하게 표기되어 반갑을 갖고 있지 않음을 애써 내보이기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떨까?" 아직 한국에 대한 반응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다. 한국은 시장도 작지만 아직 유포브(UPOV:식물 신품종 보호 동맹)가 발효되지 않아 쉽게 증식 판매 하고 있어 의미 없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7년 동경의 IFAX때의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과 이번 독일 박람회기간 중 많은 외국의 거래처를 돌며 느낀점은 2009년 한국의 완전 시장 개방에 대한 정보와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제 한국도 어쩔 수 없는 전 품목 개방의 시대를 맞아 준비하지 않으면 힘겨운 소용돌이에 휘말릴 가능성이 매우 많아 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참관한 나는 이들의 경쟁력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많은 세계 원예 관련 박람회를 많이 다녀 보았지만 이전의 경우와는 좀 달랐다. 생산자는 물론 육성자, 조경인, 디자이너는 물론 설계 및 플로리스트, 그리고 자재까지 관련 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참여하고 있다는 데서 그 흡족함을 느꼈다. 이들이 가고있는 장기적 트렌드는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세계 시장에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저마다의 가능성과 경쟁력을 확신하며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가고 있음을 실감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들이 노리는 승부수는 이제 승자독식의 큰 줄기의 흐름과 힘의 이동, 이머징마켓으로 이어지는 원예지도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움직이는 힘의 물결 같았다.

"어! 박상! 안녕하시모니까?" 일본의 대표적인 원예화훼 회사인 HAKSAN의 TAKATOMI 사장이 매우 반갑게 인사하며 자신의 회사에 우리가 개발한 숙근코스모스 우리드림과 왜성가우리, 상록찬디패랭이 등의 신품종을 공급해 줄 것을 또 한 번 정중히 요청을 했고, 이번 박람회장에 출품한 PW(미국, 유럽, 일본의 원예생산자 협회)회원사들을 소개하고 이들에게도 자신을 통해 공급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네덜란드 PW회원사의 사장도 우리의 새로운 신품종에 대한 관심은 물론 올해 당장 사원재배를 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작은 자신감이 밑바닥 가슴속을 요동친다. 이번기회를 통해 유럽, 독일의 가장 큰 원예유통회사인 LandGard의 물류기지이며 본부를 찾아 이들이 유럽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유럽으로 거대하게 움직이는 함에 대해서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신흥시장의 꿈틀대는 중국과 한국, 일본을 잇는 장기적 트렌드를 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으로 보낼 소중한 우리의 신품종들을 준비하며 9월 이번 국내 최초의 신품종 로열티로 많은 사람들이 희망으로 흥분되기를 손꼽아 기다려 본다.

Contents

- 특집 | 희망이란 이름 ····· 1면
- 스포트라이트/우리넷이 독자에게 ····· 2면
- 대표적 조경식물군 ····· 3면
- 수종, 수변 식물의 이해/그라스 스케이프 ····· 4면
- 무늬종 시리즈/Q&A ····· 5면
- 종자프로젝트 ····· 6면
- 현장히트품종 ····· 7,8,9면
- 초록마당 ····· 10면
- 아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 11면
- 특집 ····· 12,13면
- 식물관리 스케치/옥상, 암석 가든용 식물 ····· 14면
- view 가이드 ····· 15면

연재 – 3 | 스포트라이트

패랭이의 새역사

상록잔디패랭이

식물의 특허라고 할 수 있는 품종등록출원을 받은 상록잔디패랭이. 여타 패랭이류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많은 장점을 가지고 조경용소재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상록잔디패랭이의 특징을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또한 개발되기까지의 역사를 이번 코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패랭이는 우리의 산야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야생화로 이제는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는 식물이다. 꽃의 모양이 조선시대 서민들이 쓰고 다니던 모자인 패랭이와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우리나라 야생종으로는 패랭이와 솔패랭이가 주로 사용되어왔는데 꽃의 화기가 짧고 잎도 가늘고 연약하여 물빠짐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은것에 적용하면 여름장마기에 녹아내리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 사용도에 비해 효과가 많이 떨어진 셈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패랭이류(Dianthus속)품종들이 조경에 활용되어왔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일부 품종들이 들어와 분화용으로 사용되어온 정도였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패랭이품종을 조경에 도입하면서 패랭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는데 2001년도에 선보이게 된 '잔디패랭이'가 바로 그 품종이다. 우리나라에서 패랭이에 대한 조경용 소재로서의 인식의 전환이라고나 할까....

먼저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는 장기개화형으로 만개되었을때는 꽃방석을 연상시킬정도로 화려하고 잎의 형태도 잔디와 같은 피복형으로 조밀하고 안정감을 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단일품목으로 그 당시에 상당한 매출액을 자랑했다. 그리고 뒤이어 2002년도에 선보인 품종이 왕상록패랭이. 그동안 조경용소재로서 많이 사용했던 품종으로서 상록패랭이가 있었다. 이름그대로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는 품종이지만 실제로는 제역할을 하지 못해왔다. 그 이유는 잎이 약하여 대부분 여름장마기에 짓무르거나 잎이 풍성해지면서 전체적인 폼이 흐트러져 겨울에도 상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한것이 단점이었다. 왕상록패랭이는 이러한 상록패랭이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품종으로 잎이 두껍고 질감이 뛰어나며 강건하여 여름장마기에도 짓무름이 없고 잎의 형태(폼) 또한 상록패랭이에 비해 안정감이 있고 화색에 따라 품종(연지, 참이슬, 매혹, 카멜레온)이 다양한 특징이 있었다.

이후 잔디패랭이와 왕상록패랭이는 활발하게 사용되어왔고, 이때 꽃이 장기개화되면서 잎은 상록을 유지하며 질감이 뛰어나고 폼이 안정적인, 즉 두품종의 장점을 동시에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이상 뛰어남을 수 있는 품종 개발에 착수하게 되었다. 약 4년동안 패랭이 품종의 교잡을 통해서 좋은 품종을 많이 선발하게 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상록잔디패랭이' 이다. 잔디패랭이와 같이 봄부터 가을까지 꽃을 피우고 꽃의 크기도 크고 화색도 진한 상록잔디패랭이는 물빠짐이 좋은 곳이라면 어느곳에 적용해도 잘 어울린다. 앞쪽의 라인식물, 혼합식재시 앞쪽식물로 적용하거나 도로변 화단 또는 중앙분리대 화단 등 대면적에 군식해도 좋다.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데에는 많은 투자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 그리고 그 산물로서 좋은 품종이 탄생된다. 물론 그 품종이 실제 현장에 적용되어 뛰어난 효과를 보여줌으로써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더할나위 없이 개발의 의미를 더욱 값지게 한다.

2006년도에 첫 출시된 상록잔디패랭이는 소비자들의 좋은 평가를 받으며 2007년에는 더 큰 사랑을 받았다. 좋은 품종개발에 대한 보답으로 생각하고 '우리꽃' 은 더욱 더 품종개발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갈 것이다.

아시아나항공 본사

우리넷이 독자에게

변화의 물결

'우리꽃' 은 전직원이 태안에서 봉사활동을 시작으로 2008년을 열었다. 우리는 환경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관련서적 등을 통해서 갈수록 그 심각성을 예고하는 것을 들어왔다. 경제문제에서도 이 환경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화두로 다루고 있으며 국가간에도 서로 환경문제에 대해서 활발한 인적, 정책적 교류를 통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위상으로 볼 때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은 밑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태안, 얼마나 큰 재앙인가. 세월이 지나면 그냥 잊혀져서는 안될 것이다.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그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21세기는 계속 변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경제, 문화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환경, 모든 것이 눈뜨고 일어나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에 도전의식과 창조정신에 기반한 새로운 창출만이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고 이어나갈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의미에서 2008년을 시작하는 '우리넷' 첫페이지를 '이젠, 싸워야 한다' 로 장식했다. 이젠 끊임없는 변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꽃' 이 그동안 국내에서 조경용 속근지피식물 소재의 변화를 주도했다면 이제는 세계라는 더 큰 울타리를 향해 경쟁력을 키워서 또다른 변화의 물결을 주도하겠다는 신념이다. 올해 새롭게 외부기고로 제외지는 '초록마당' 과 외국의 박람회, 식물원 등의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VIEW 가이드' 코너가 신설되었다. 더 좋은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독자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 좋은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기고 부탁드린다. 그 외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길 바란다. 또한 독자여러분들의 정보 제공이 '우리넷' 이 조경인들의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한 역할도 담당할 수 있으리라 본다.

2008년 전직원 워크샵이 예년보다 조금 늦은 2월에 2박3일간 일정으로 진행됐다. 항상 외부에서 치렀던 워크샵을 이번에는 이천연구소에서 가졌다. 이천연구소 사무실과 숙소가 리모델링되는 과정에서 기존 사무실이 없어지게 되어 새로운 도약기를 시작했던 이천연구소 사무실에서 마지막으로 전직원이 함께 하자는 의미였다. 기존직원들과 새롭게 입사한 경력 및 신입사원들이 함께 자리를 하여 올해 각 사업장별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지, 어떻게 변화해 나갈것인지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2008년 '우리꽃' 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라고나 할까....

그동안 '우리넷' 을 통해서 식재 후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식물규격에 대한 제안을 해왔었다. 드디어 그 첫걸음이 시작되었다. 현대건설의 아파트 시공현장 중 한곳에서 올 6월 식재예정으로 완성형이 될 수 있는 큰 규격으로 '우리꽃' 에 약 40여가지 품종의 준비를 의뢰해 왔다. 3월부터 그 준비가 시작된다. 규격 변화의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2008년 또다른 조경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시작되고 있다. 벽 · 화 · 수

대표적 조경식물군(Genus)으로 본 분류학적 의미와 품종의 이해 17

Carex속

그라스(Grass)라고하면 사초과와 화본과를 통틀어 말하는데 Carex속은 그중 사초과의 대표적인 식물군이다. Carex속은 약 1,500여종이 넘는 종을 보유하고 있는 커다란 식물군으로서 양지, 음지, 수중, 수변 등 서식지도 매우 다양하여 조경소재로서도 거의 모든 곳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식물군이다. 또한 상록성을 유지하는 종도 있고 특히 무늬종들은 잎의 관상가치가 뛰어나 고급조경소재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그라스의 대표적인 식물군으로서 Carex속의 핵심이 되는 품종을 소개하고자 한다.

노란줄무늬대사초

노란줄무늬대사초(*Carex siderosticha 'Variegata'*)는 깔끔한 노란색의 줄무늬를 가진 식물이다. 흰줄무늬대사초의 특성과 매우 흡사하여 음지에서 잘 자라고 피복력도 매우 우수하다. 단독으로 식재해도 좋고 수목의 하부식재에 흰줄무늬대사초와 혼식을 하여도 좋은 경관을 연출 할 수 있다.

흰줄무늬대사초

흰줄무늬대사초(*Carex okamotoi 'Variegata'*)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는 그라스종의 하나이다. 잎의 가장자리에 흰줄무늬를 갖고 있으며 포복형으로 매우 조밀하게 자란다. 특히 음지에서 잘 자라며 피복력이 대단히 우수하다. 돌틈식재나 포인트식물로 좋고 소나무 하부식재가 가능하며 음지에 군식을 하면 좋은 식물이다.

대사초 골든라이트

대사초 골든라이트(*Carex siderosticha 'Golden light'*)는 음지를 밝게 해주는 그라스이다. 흰줄무늬대사초와 노란줄무늬대사초와는 다르게 잎의 노란무늬가 가운데 있으며 잎의 길이가 길다. 그래서 잎의 노랑무늬가 더욱더 눈에 띄는 품종이다. 생육이 좋고 피복력이 우수하며 음지에서 잘 자란다. 경사지나 소나무 하부식재가 가능하고 특히 수목하부에 군식을 하면 밝은 음지를 연출할 수 있다.

에버골드

에버골드(*Carex oshimensis 'Evergold'*)는 잎의 광택이 있고 선이 고우며 겨울에도 상록의 잎을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잎이 부드럽고 질감이 뛰어나 매우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한다. 30cm정도까지 자라는데 양지나 음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화단의 점식나열이나 혼합식재나 ARI가든에 포인트식물로 매우 좋다.

골드밴드

골드밴드(*Carex morrowii 'Gold band'*)는 고급조경소재로 잎의 초형이 난과 같이 선이 아름다운 식물이다. 전체적인 초형이 단아하고 아름다우며 겨울에도 상록성인 잎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연못의 바위주변이나 독립포기로 혹은 ARI가든의 소재로 음지의 차별화된 연출에도 매우 뛰어난 식물이다. 열식혹은 군식해도 좋고 특히 포인트식물로 좋다.

상록청사초

상록청사초(*Carex flagellifera spp.*)는 적갈색의 무늬가 좋은 그라스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왕성하여 어느 곳이나 잘자라며 색과 질감이 좋은 잎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군식을 하거나 락가든의 포인트식물로 적용하면 좋고 가을분위기를 연출하는데 더욱 좋다.

화룡물사초

화룡물사초(*Carex 'Uri fire dragon'*)는 '우리꽃' 이 선보인 대표적인 수중식물이다. 수심 20cm까지는 생육이 가능하며 약 80cm까지 자라 매우 안정된 형태를 가진 그라스이다. 잎이 블루색을 띄어 더욱 시원한 느낌을 주며 생육이 강하고 특히 내한성이 우수하다. 습지조성시 군식을 하면 좋은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해변무늬실사초

해변무늬실사초(*Carex riparia 'Variegata'*)는 잎의 질감이나 형태가 우수한 그라스이다. 생육이 강건하고 특히 습기가 많은 토양을 좋아하며 키는 60-70cm정도 자라고 잎이 매우 많이 휘어져 잎의 길이는 1m까지 자란다. 연못주변에 군식하면 좋고 계곡의 돌틈사이에 식재하면 가느다란 잎이 늘어져 자연스러운 경관을 연출한다.

상록갈사초

상록갈사초(*Carex Bauchananii, Carex commans 'Bronza'*)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갈색의 잎을 가진 그라스이다. 키가 40-60cm까지 자라며 건조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한다. 또한 장마에도 잘 적응하는 우수한 품종이다. 식물 폼이 우수하고 품종에 따라 잎의 길이가 다양하여 분위기와 용도에 맞게 적용폭이 넓으며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옥상조경과 ARI가든은 물론 목재 데크구조물과 잘 어울린다.

스노우라인

스노우라인(*Carex conica 'Snowline'*)은 무늬가 아름다운 미니종 그라스이다. 키가 15cm정도로 작고 잎이 가늘고 식물폼이 좋으며 겨울에도 상록의 잎을 가진 작고 앙증맞은 식물이다. 분화용으로도 좋고 ARI가든에 앞쪽에 포인트식물로 좋다.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연재 – 21

수변의 봄을 알리는 "개량앵초"

봄에 꽃을 피는 야생화로 머리에 쉽게 떠오르는 식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 금낭화, 할미꽃, 매발톱, 노루귀, 은방울, 앵초....

그중 이번 호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식물은 앵초이다. 단순히 '봄꽃' 소재로서가 아니라 수변의 봄을 알리는 '수변식물' 로서의 앵초.

앵초는 이른 봄 햇빛이 잘 드는 냇가나 습기가 많은 초원지대에 무리를 이루고 피어나는데 물 빠짐이 좋은 모래나 자갈이 많은 곳에 부엽이 많이 섞인 비옥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앵초류에는 우리나라 자생종과 개량종이 있는데 자생종에는 앵초, 설앵초, 큰앵초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화기가 짧고 날이 더워지면서 잎이 하고현상이 일어나는 등 강건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 조경용보다는 분경용으로 더 알맞은 소재이다. 반면에 개량앵초는 여러가지 품종이 있는데 대부분 화색이 다양하고 화기가 길고 생육도 강건하여 조경용으로 알맞다.

일반적으로 앵초가 봄꽃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수변에 적용가능한 소재로 알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위에서 말했듯이 주로 습기가 많은 곳이나 활엽수아래 빛가주변에 자생하기 때문에 수변에 매우 알맞은 식물이다. 외국의 Water Garden에 대한 관련서적을 보게되면 수변식물로 반드시 볼 수 있는 것이 개량앵초류이다. 다

대부분 화색이 다양하고 화기가 길고 생육도 강건하여 조경용으로 알맞다

시말해 연못, 계류주변에 앞쪽에 식재하여 봄 일찍 꽃을 볼 수 있는 안성맞춤의 소재로 군데군데 모아심거나 한곳에

군식해 심으면 매우 좋다. 개량앵초는 품종도 다양하여 키가 작은 것은 10cm에서 키가 큰 품종은 30cm이상 자란기도 한다. 대부분 4-5월경 다양한 화색의 꽃을 피우며 양지 뿐만 아니라 반음지에서도 잘자란다.

즉, 연못주변 수목아래 음지쪽의 식재에도 잘 적응하여 수변의 양음지를 가리지 않고 잘 자란다.

변식은 파종하거나 분주를 하는데 품종에 따라서 유리한

4-5월경 다양한 화색의 꽃을 피우며 양지 뿐만아니라 반음지에서도 잘자란다.

것을 선택하면 된다. 최소 전해 가을에 식재가 완료되어야 이듬해 봄에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수변을 조성할 때 아이리스, 호스타, 그라스 등등의 수변식물과 조화롭게 식재하면 잘 어울리면서 동시에 수변의 봄을 알리는 좋은 소재가 될 것이다.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Grass Scape 연재 – 16

사계절 연출이 가능한 그라스 "몰리니아"

이번에 소개할 몰리니아는 한국 야산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진퍼리새속의 식물로 산과 들, 습지에서 자라며 유럽, 동아시아 원산의 식물이다. 하지만 몰리니아는 한국자생의 진퍼리새와는 달리 줄기가 강건하고 포기의 형태가 좋아 조경용으로 적합하다. 몰리니아는 내한성이 강하고 한국기후에도 적응이 잘 되어 전국 어디서나 사용가능하다. 한국자생의 진퍼리새종 형태가 좋고 관상 가치가 높은 것을 분리하거나 개량해 조경에 사용해도 충분히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봄부터 겨울까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전천후 그라스 품종

몰리니아란 말은 "떨다, 움직이다" 에서 유래되었다. 이름에서 보듯이 줄기가 여러개가 모여나며 길게 올라와 바람에 하늘하늘 흔들리는 것이 한국의 정서와도 잘 어울린다. 6~8월에 핀 꽃과 봄, 여름동안의 진녹색의 잎과 줄기는 매우 깔끔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준다. 거기에 더하여 가을이 되면서 갈색 혹은 황금색으로 단풍이 들어가는 모습은 가히 일품이다. 그리고 겨울에도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봄부터 겨울까지 4계절 모두 시기별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전천후 그라스 품종이다. 또한 대가 튼튼하여 웬만한 바람이나 비에 쓰러지지 않아 관리에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고급조경에 사용되어지는 그라스류중 억새 모닝라이트, 억새 그린라이트, 무늬억새 등은 포기가 크고 형태가 좋아 단독식재, 포인트 식재에도 좋지만 몰리니아는 잎의 길이가 짧고 줄기가 높이 솟아 단독식재나 포인트 식재보다는 군식 또는 동선 옆으로 2~3

군식 또는 동선 옆으로 2~3줄로 열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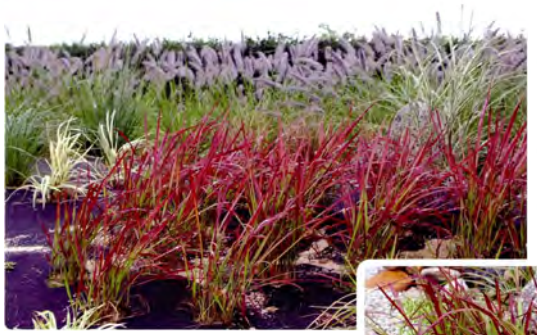
줄로 열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다. 단지 AR1 가든을 조성할 때에는 부분적으로 2-3포기정도 모아 심는 것은 괜찮을것이다.

키가 큰 품종은(Molinia caerulea 'Heidebraut') 80~100cm정도 자라고 작은 품종은(Molinia caerulea 'Moorhexe') 30cm정도 자라는데 그라스원을 조성할 때 억새류(무늬억새, 모닝라이트, 그린라이트 등) 앞쪽으로 심어 돋보이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른 그라스류와 마찬가지로 몰리니아도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라며, 관리에 크게 손이 가지 않는 것과 해가 지날수록 더욱 보기가 좋아진다. 군식용으로 많이 쓰는 억새 외에도 몰리니아를 사용하여 현장을 더욱 다양하게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무늬종 시리즈

업그레이드 고급소재 연재 – 22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붉은 물결 "홍 띠"



요즈음 화본과(Grass) 식물을 주제로 한 정원들과 그 쓰임새가 많이 늘고 있다. 예전에는 잡초로 생각되어 모두 죽이려고만 했던 것을 생각하면 참 많은 변화가 생긴 것이다. 처음 생태적인 조경이 일반화되면서 토양안정을 위해 억새, 갈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색의 잎을 가지고

대, 수크령 등 화본과 식물들의 쓰임새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거기에 한발 더 나아가 이제는 식물품이 좋은 또는 무늬가 좋은 화본과 식물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양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품목이 이색적인 무늬종인 홍띠 (*Imperata cylindrica 'Red Baron'*)이다.

홍띠는 오래전부터 일부 농가에서 재배해왔지만 분화용정도로 이용되어왔고 조경용으로 본격적으로 적용된것은 근래 2-3년사이다. 홍띠는 멀리서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적색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적색의 잎을 지닌 식물은 흔치 않다. 보통 식물들이 가을에 단풍이 들 때만 가질 수 있는 색을 홍띠는 이른 봄부터 가을까지 유지하며 특이한 경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더욱 붉은 잎으로 변하여 차별화된 모양으로 경관을 연출한다.

주요 적용가능한 곳은 연중 붉은색을 강조할 수 있는 곳으로 돌 틈이나 작은 언덕 그리고 분양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데크주변 등에 어울리게 식재하면 매우 아름답다. 그라스

핵심 포인트를 주거나 군식 및 열식 모두 다 잘 어울리며

원을 조성할때에도 잎의 색감이 대비되는 뛰어난 특성이 있어 주소재를 뒷받침해주는 부소재로서 더할 나위없이 좋다. 핵심 포인트를 주거나 군식 및 열식 모두 다 잘 어울리며 현장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게 식재하면 새다른 긴장감을 유발한다.

삐비라고 불리는 띠가 하얀색 꽃을 피우는 반면 홍띠는 주로 꽃이 피지 않아 열매를 맺지 않으며 땅속으로 줄기를 뻗어 번식하는데 땅이 좋은 경우에는 매우 번식이 빠르다. 이른 봄 또는 가을에 분주한 것이 좋고 생육이 강하여 특별한 관리없이도 매우 잘 자란다.

독자 Q&A

Q 야생화 정원에 퇴비를 주고 싶은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주는 것이 좋은가요?

A 퇴비를 주는 것은 식물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언제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품종의 다년생숙근초(야생화)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공통적으로 퇴비를 주는 시기와 종류는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에 한 번씩 퇴비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절한 시기는 봄에 싹이 나오기 전에 유기질비료를, 여름 장마기 전후로 복합비료를, 더위가 지나가고 잎이 시들기 전인 9월초쯤에 유기질비료 혹은 복합비료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중 여름에 퇴비를 줄 때는 퇴비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에게 선택적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적정량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Q 세덤류의 관리요령을 알고 싶은데요.

A 세덤류의 거의 모든 식물들은 물을 함유하고 있는 유조직이 발달되어 있어 건조에 매우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도 생육이 좋습니다. 따라서 세덤류의 식물생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물관리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노지에서는 적당히 비가 와주기 때문에 식재를 하고 바로 물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관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물빠짐이 조금이라도 좋지 않으면 짐크리지는 경우가 빈번한데 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에 장마기가 길고 많은 양의 비가 오기 때문에 반드시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식재지에 경사를 주어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Q 이른 봄에 파종을 해서 바로 꽃을 볼 수 있는 품종들을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A 봄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대부분 가을에 꽃을 피우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을에 파종을 하고 발아되어 일부 성장을 하는 식물들이 다음해 봄에 가장 빨리 개화를 하게 됩니다. 이런 품종들을 보통 월년생 식물들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양귀비류가 있으며 그 외에 안개초, 수레국화, 끈끈이대나물, 유채 등이 있습니다. 대부분 가을에 파종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은 꽃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봄에 파종을 하여도 큰 문제는 없으며 보통 3월경에 파종을 하면 생육상태에 따라서 6월 초중순경에 꽃을 볼 수 있습니다.

Q 연못 주변에 야생화를 식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요즈음 조경현장에서 친수공간이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중에서도 계류와 연못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는 현장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연못과 계류를 잘 조성하는데 비해서 식재는 식물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심는 현장이 대부분이어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꽃창포, 노루오줌, 동의나물 등 소재의 천편일률적인 적용보다는 다양한 소재를 알맞고 올바르게 적용하는 것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친수공간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넷 11,12월호의 '수중수변식물의 적용' 이란 코너를 참고하시면 소재의 선택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는 식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거의 대부분의 초본류들은 겨울에 잎이 지기 때문에 초본류를 식재한 곳은 황량하거나 허전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조경식재지에 상록성의 희양목이나 사철나무, 반상록인 철쭉류와 같은 관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품목의 한계가 있어 단조롭고 획일된 경관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상록성의 숙근지피식물을 적용하면 더 좋은 겨울경관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산유카 브라이트에지, 왕상록패랭이, 상록잔디패랭이, 수호초, 무늬맥문동, 단풍세덤, 블루솔세덤, 송악, 꽃잔디류, 골드밴드, 에버골드, 상록갈사초 등이 있습니다.

종자프로젝트
연재 – 10

색색이 펼쳐지는 봄의 향연 양귀비를 중심으로...

수레국화

잉글랜드뽀삐에 비해 약 2주정도 빨리 핀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을 나누어서 따로 파종하기도 하지만 잉글랜드뽀삐와 일정한 비율로 혼합해서 파종하게되면 먼저 아이슬란드뽀삐 꽃을 보고 뒤이어 잉글랜드뽀삐 꽃을 감상할 수 있어 한 장소에서 시각적으로 화기를 길게 가져갈 수 있다.

꽃무

쥐눈뽀삐

대면적의 효과적인 경관용소재로 양귀비(뽀삐)를 그동안 여러코너를 통해서 소개했었다. 이번에는 양귀비를 중심으로 지역축제, 식물원, 공원 등에서 봄을 화려하게 수놓을 수 있는 이년생(bienial)종자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반드시 이용할 필수적인 소재로 양귀비종류인 잉글랜드뽀삐, 아이슬란드뽀삐, 캘리포니아뽀삐, 쥐눈뽀삐가 있다. 그리고 안개초, 수레국화, 끈끈이대나물 등이 있다. 이외에도 꽃무, 향무, 서양말냉이, 보리 등의 소재가 있다. 물론 유채와 같은 소재도 있지만 이미 전국적으로 흔히 쓰이고 있기에 여기에서는 제외했다.

잉글랜드뽀삐는 현재 많이 쓰이고 있는 양귀비종류로 키는 약 70~80cm정도 자란다. 전체를 붉게 수놓는 적색품종과 적색과 분홍색이 섞여 화려함과 은은함이 동시에 배어나오는 혼합색 품종이 있다.

아이슬란드뽀삐는 주황색, 흰색, 노랑색이 혼합되어 있는 품종으로 화색의 조화가 매우 아름답다. 그리고 키도 약 40~50cm정도 자라 아담한 크기이며 꽃이 피는 시기도 한 진분홍의 색감이 튀어나 이전부터 많이 사용해왔다. 수레국화는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해 온 것은 보라색의 꽃이 주종을 이룬다. 하지만 수레국화도 품종에 따라서 색상이 다양하여 입맛에 맞게 색상(보라, 분홍, 하양, 빨강)을 선택하여 파종하는 것이 가능하고 키가 작은 왜성종도 존재한다. 그 외에도 앞에서 언급한 꽃무, 향무 등도 위에서 소개한 이년생종자들과 함께 효과적으로 적용가능하다.

위에서 말한 모든 품종을 현장여건에 맞게 색상을 고려하여 알맞게 디자인하여 파종한다면 지역에 따라 차이(기온에 따른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5월부터 6월사이 약 1달간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파종시기는 가을에만 이루어져야 되는가? 원칙적으로 가을에 파종(추파)해주는것이 생육이 안정적이고 개화시기도 봄(5월중하순)에 맞출 수 있어 적기이다.

하지만 부지정리가 늦어졌거나 예산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을에 파종 시기를 놓친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럴때는 봄 해동이 되면서 바로 파종해주어도 가능하다. 다만 추파에 비해 개화시기가 약 2주정도 늦어지는 점을 감안해야하고 생육에 좀 더 신경을 써주면 된다.

지난 가을에 파종을 놓친 곳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계획을 세워보는것이 어떨까. 지금 빠른 선택이 봄을 아름답게 수놓을 것이다.

캘리포니아뽀삐는 금영화라고도 불리는데 노랑색 꽃물결은 다른 양귀비종류와 잘 대비되면서 역시 아름다운 경관을 보여준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뽀삐는 노랑색으로만 잘 알려져있는데 사실 노랑색, 하얀색, 황금색 등 그 품종이 다양하다. 캘리포니아뽀삐 품종만으로도 서로 구간을 나누어 파종하여 다양한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쥐눈뽀삐는 올해 처음 선보이는 종으로 적색의 꽃에 특이하게 검은색 반점이 있어 붙여진 이름으로 색다른 느낌을 준다. 그 외의 큰 특징은 다른 어떤 양귀비종류보다 화기가 빠른 장점이 있어 앞으로 매우 유망한 품종이라 할 수 있다.

안개초는 하얀 순백의 느낌을 가져다주는 품종으로 대면적에 파종해도 좋고 잉글랜드뽀삐 등 강렬한 색감을 뒷받침해주어 더욱 돋보여 줄 수 있기때문에 가장자리에 파종하여 테두리를 이루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끈끈이대나물과 수레국화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끈끈이대나물은 강렬

잉글랜드뽀삐+안개초+캘리포니아뽀삐

잉글랜드뽀삐(혼합)

안개초

"꽃양귀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파종하세요!!

잉글랜드뽀삐 2종
캘리포니아뽀삐 5종
아이슬란드뽀삐 1종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귀비는 대면적에 단일종자를 이용하여
화려한 경관연출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현재 지자체, 골프장, 식물원 등에서 봄을 화려하게 수놓는
최고의 식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꽃에서 다양한 양귀비 품종을 만나보세요!!

아이슬란드뽀삐

캘리포니아뽀삐

잉글랜드뽀삐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가우라

가우라는 최고의 장기개화형 소재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개 5,6월부터 개화하기 시작하여 11월까지 계속하여 꽃이 피고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12월까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품목도 따라올 수 없을만큼 오랫동안 꽃을 피웁니다.

가우라는 특별히 아름답습니다.

나비를 연상시키는 꽃은 우리의 정서와도 잘 어울리며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어당기는 매우 아름다운 소재입니다.

생육이 강건하여 어디에서나 잘 적응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으며 화색이 다양하여 하양, 분홍, 빨강의 여러품종이 있습니다.

'우리꽃' 이 개발한 신품종 가우라 '베이비'

직립형의 키가 작은 다화성 품종으로 둥근형의 식물폼은 매우 아름답고 장기개화형 입니다. 현재 품종출원등록 준비중입니다.

가우라는 이제 조경의 필수소재입니다.

가우라 베이비

털수염풀

털수염풀은 2008년 그라스류의 대표주자 입니다.

2007년 첫선을 보인 털수염풀은 2008년 본격적인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햇살, 바람과 함께 최상의 조화를 이루는 그라스로 잎의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에 있어 단연 돋보이는 식물입니다.

단독으로 나열을 하거나 큰 군락으로 식재하면 좋고 분화용으로도 좋아 디스플레이, 행사축하용으로도 적용 가능합니다.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향기좋고 아름다운
숙근사루비아

1. 최근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숙근지피식물
2. 생육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다양한 품종의 숙근사루비아
3. 품종별로 화색, 크기, 화기 등이 서로 달라 구미에 맞게 품종선택 가능

스노우

로즈

마로커스

비올라

블루

레드오서

우리정서에 맞는 장기개화형
숙근코스모스

1. 5월부터 10월까지 연속개화
2. 다양한 화색의 새로운 지피소재
3. 골프장, 공원, 고속도로변 등 모든 곳에 잘 어울리는 고급소재

분홍

노랑

빨강

꽃이 크고 생육이 강건한 습지의 아름다운 붓꽃
제비붓꽃

1. 꽃과 잎이 크기 때문에 시원한 느낌을 가져다 준다.
2. 수변 및 얕은 물속에서도 생육이 강하다.

봄을 수놓는 보라색 후룩스
후룩스 '봄바람'

1. 후룩스와 꽃잔디의 중간형
2. 꽃잔디처럼 늦에 꽃을 피지만 키가 30cm까지 자란다.
3. 화색이 매우 고급스러워 고급조경에 알맞은 소재

장기개화형 음지식물
달 개 비

1. 햇빛이 어느정도 들어오는 반음지에 적용가능
2. 품종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넓다.
3. 늦봄부터 가을까지 장기개화

아이스

사루데

레드 그레이트

블루

카인

우리꽃 '현장히트품종'

촛불형의 아름다운 장기개화형
꼬리풀 시리즈

1. 생육이 강건하고 아름다운 5품종의 꼬리풀
2. 품종별로 화색, 크기, 화기 등이 서로 달라 구미에 맞게 품종선택 가능
3. 장기개화되어 화단, 도로변, 식물원 등에 사용하면 좋다.

핑크

미브

리틀블루

로젯

생육이 강건한 아름다운 동자꽃
수레동자

1. 일반 동자꽃에 비해서 생육이 매우 강하다.
2. 꽃무리가 크고 지속적인 개화를 진행한다.

대형의 이국적인 느낌
왕 머 위

1. 생육이 강건하고 내한성이 강한 수변식물
2. 습기가 많은 계곡이나 수변에 적용할 수 있는 대형식물

잎과 꽃이 좋은 최고의 관목소재
삼색조팝, 황금조팝

1. 아름다운 잎과 꽃이 잘 어울리는 조팝
2. 공원, 도로변, 골프장 등에 회양목이나 철쭉 대용으로 활용하면 봄부터 가을까지 계속해서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3. 생육이 강하고 번식력이 뛰어나다.

삼색 조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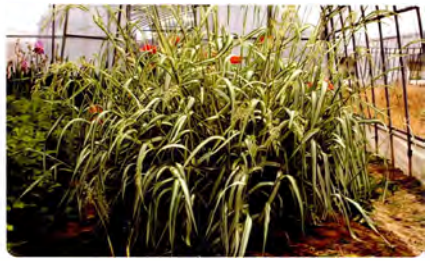
황금 조팝

화려한 봄 꽃방석
꽃잔디 시리즈

1. 생육이 강건하고 지람이 빠른 최고의 봄꽃
2. 군식하거나 옥상, 암석가든용으로 잘 어울리는 소재
3. 품종간 혼식하였을때 더 잘 어울려 그 효과를 배가 시킨다.

잎이 좋은 대형의 무늬종 갈풀
대형무늬갈풀

1. 잎 자체만으로도 뛰어난 관상가치가 있다.
2. 대형식물로 포인트식물 또는 군식해도 좋다.



초록마당

척박지의 개척자
대 나 물

상명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김 광두 (이학박사)

올해부터 신설된 코너로 각계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조경, 원예 등에 관련된 주제로 자유로운 기고를 받고 있습니다. 첫회로 김광두 교수님의 글을 싣습니다. – 편집자주 –

2007년 8월 가족들과 함께 대천 원산도에 휴가를 갔었다. 돌아오는 길에 부둣가에서 배를 기다리는 동안 동네어귀에 거의 돌섬이나 마찬가지의 자그마한 섬주변에 마치 안개꽃같은 작은 꽃들이 하얗게 무리지어 피어있었다. 처음에는 웬 안개꽃이 수성암지대 풍화된 돌틈에서 자랄까? 의심하면서 자세히 검색하여 보았더니 잎은 끈끈이 대나물과 유사하고 꽃은 안개꽃과 비슷하여 추리를 하였으나 잘 모르는 꽃이었다. 주민들에게 물어봐도 옛날 어른들이 어릴때 새순을 나물로 뜯어 먹었다고 하면서도 이름은 잘 모른다고 했다. 귀가후 석죽과를 검색한 결과 대나물로 판명되었다. 그 때부터 이것을 번식시켜 도로 비탈면의 풍암지대나 골프장 비탈면의 훼손지중 특히 돌이 많은 척박지, 암석원 같은 곳에 식재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영종도 SKY72골프장에 자문 차 들려 Ocean Course를 점검하는 도중에 자연보전지역일부에 대나물이 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주변을 조사한 결과 상당한 양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았다.

"해안간척지 친환경적 복원시공" 최 병권, 오 휘영 (2001, 도서출판조경)에 의하면 영종도, 삼목도, 장봉도, 작약도, 용유도, 무의도, 대부도, 영흥도, 자월도, 이작도, 승봉도, 풍도, 덕적도, 소야도, 선미도, 굴업도, 문답도, 선갑도, 백아도, 울도, 석모도, 안면도, 강화도에 분포하고 있음을 조사 보고 한바 있다. 또한 "식물지리" 이 우철, 임 양재 (2002, 강원대 출판부)등에 의하면 전남의 보길도, 소안도, 청산도, 완도, 관사도, 상조도, 하조도, 진도, 만덕산, 청간산, 우이도, 월출산, 가지산, 영취산, 조계산, 무등산, 백운산, 병풍산에 전북의 광덕산, 모악산, 미륵산에 경남의 승봉산, 존재산, 지리산, 천황산에 경북의 가야산, 팔공산, 선암산, 청화산, 황학산, 주왕산, 주흘산, 통고산, 독도에 충남의 부여, 계룡산, 백화산, 수덕산, 가야산, 팔봉산에 충북의 식장산, 선도산, 속리산, 학가산, 만뢰산, 도담삼봉, 삼태산에 경기도의 덕적도, 수원,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교동도, 광릉, 백령도, 소요산, 지장봉, 백운산, 영종도, 인천, 어유정도, 강화도에 강원도의 자병산, 점봉산, 설악산, 금강산에 서울의 남산, 관악산, 청계산, 북한산에 황해도의 장산곶, 초도에 평남의 평양에 함북의 관모봉(도성산)등에 분포되어 있음을 조사 보고하였다. 그리고 가는대나물 (*Gypsophila pacifica*)은 함북의 칠보산, 백두산(무두산)에 분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대나물(*Gypsophila oldhaniana*)은 Gypsophyll(영), 은시호(한), Kogome-nadeshika(일)로 부르며 석죽과(Caryophyllaceae)에 속하고 지방에 따라 (속명)마디나물, 대나무풀, 하초, 은시호, 마디풀나무, 짭룩대나무, 장구채, 가는다리장구채, 사석죽, 마책채, 구석두화, 마생채, 산마생채, 산마책채 라고 부르기도 하며 꽃말은 "깨끗한 마음" 이다.

뿌리가 한약재로 쓰임에 따라 약명이 은시호, 하초근, 은시호근, 은호, 산채근, 토삼이라 부르며 가을에 굴취하여 줄기와 잔뿌리를 제거하고 햇볕에 말려 잘게 썰어 사용한다. 뿌리의 성분은 유독성분인 사포톡신(*Sapotoxin*)이 약간 그리고 Gypsogid와 Gypsogenin도 함유되어 있다. Gypsogid성분은 토끼의 죽상동맥경화의 형성을 예방하며 Saponin성분들은 혈장단백에 작용하여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안에 쌓이는 것을 방지한다. 소아의 신열을 내리고 오랜시병으로 인한 발열과 조열을 치료하고 해열, 거담, 강장의 효능을 가지며 특히 어린아이의 간질병의 치료약으로 사용된다.

분포는 앞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남부지방, 중부지방, 북부지방 등 거의 전국에 걸쳐 분포하고 주로 산야지, 숲의 가장자리나 초원에, 또는 바닷가의 수성암지내의 산지에 자생한다. 국외로는 중국에 분포하며 원래 유럽의 야생화인데 오래전에 귀화하여 전국각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대나물은 다년생 초본이며 오래되면 뿌리목주변은 거의 목질화가 되며 높이는 50~100㎝정도자라고 뿌리가 굵고 전체에 털이 없으며 뿌리목에서 여러 가지가 나와 곧게 자라고 윗부분에서 가지가 갈라진다. 어린순은 맛이 담백하고 달기 때문에 가볍게 데쳐서 찬물에 헹구고 난 다음 간을 맞추어 무쳐서 나물을 먹는다.

꽃은 6~7월에 산방상 취산화서로 백색이며 원줄기끝과 가지끝에 꽃이 촘촘하게 많이 달리고 꽃받침은 짧은 종 같으며 5개로 갈라지고 5개의 꽃잎과 10개의 수술이 있으며 1개의 암술대는 2개로 갈라진다. 열매는 8~10월에 성숙하며 삭과는 둥글고 4개로 갈라진다. 꽃이 자주색이고 윗부분에서 잎의 밑부분이 원줄기를 완전히 감싸는 것을 " 가는 대나물"이라 하며 개성이북에 분포한다. 번식은 일반적 실생법과 분주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녹지삽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대나물은 내한성, 내건성이 강하며 내조성도 강하여 바닷가나 내륙이나 척박한 돌밭에서 생육이 양호함으로 암석원, 도로비탈면, 골프장의 비탈면에 적극 추천하고 관상용 분화도 권장할 만하다.

우리꽃 이천연구소 찾아오시는 길

❶ 중부고속도로 이용시
① 일죽 IC
② 장호원방향 좌회전(4.5km)
③ 이천 수산리 이정표따라 좌회전(5km)
④ 막힌 T자형삼거리 좌회전(800m)
⑤ 진영코리아앞 우회전

❷ 영동고속도로 이용시
① 이천 IC
② 장호원방향
③ 하이닉스 지나 대월삼거리 우회전 약(10km)
④ 송곡주유소(우측)
⑤ 진영코리아 앞 좌회전

❷ 이천시내 국도 이용시
① 미란다호텔 지나 직진(1km)
② 복하사거리 우회전
③ 설성, 모가방향 우측으로 빠져
④ 굴다리 아래로 좌회전
⑤ 송곡주유소(우측)
⑥ 진영코리아 앞 좌회전

우리넷 편집실에서…

"우리넷은 독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 우리넷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기고(기행문을 비롯한 조경에 관련된 글)를 받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독자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 내용을 ◎ 우리넷 홈페이지(www.uriseed.com) 게시판에 올려주시거나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넷 Q & A코너를 통해서 게재할 것입니다.

우리넷 독자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더욱더 유익한 우리넷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야생화를 이용한 생활의 지혜
연재 – 2

쓰임새가 많은 맑고 아름다운 식물
"연 꽃"

연꽃(*Nelumbo nucifera*)은 흙탕물 속에서도 맑고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상징하기도 하고 나아가 빛과 극락을 상징하기도 하여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연꽃은 씨주머니 속에 많은 씨앗을 담고 있어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여 그림이나 건축물, 의복, 자수 등에 연꽃을 많이 새기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연은 식용 연으로 주로 분홍색의 홑꽃을 가진 연으로 7-8월에 걸쳐 포기당 약 7송이의 꽃을 피운다. 아름다운 꽃이 피고 꽃잎이 떨어지면 벌집 모양의 열매가 10월중 갈색으로 익으며 그 속에는 타원형의 씨앗이 들어 있다. 연꽃이 지고 나면 생기는 열매를 연실이라 부르고 집안을 치장하는데 사용하거나 약재로 사용한다. 또한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는 뿌리는 연근이라 하여 식용으로 즐겨 먹으며 연잎으로 담근 연엽주와 연향차는 고유의 술과 차로 사랑을 받고 있다. "본초강목"에서는 연꽃을 "기력을 왕성하게 하고 모든 질병을 물리치며 오래 복용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수명을 연장한다."고 하였다. 연은 식품으로 보다는 약재로서의 효용가치가 훨씬 크다. 연잎, 꽃, 줄기, 연밥, 연근 등 모든 부분을 약재로 쓰는데 '연밥과 연근'이 가장 중요하게 쓰인다.

◎ 연꽃잎 : 연꽃잎은 맛이 달면서도 약간 쓴데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어혈을 풀어주는 데 효과가 있다. 타박상으로 인한 울혈을 치료하고 상처에 찧어 붙이면 지혈효과도 크다. 흰 연꽃잎 한 장을 종기가 난데 붙이면 놀랄 만큼 빨리 낫는다. 연꽃의 수술을 말린 것은 치질과 치루를 치료하는 데에도 쓰지만 당뇨병으로 인한 심한 갈증을 멎게 하고 혈당치를 내리는 효과가 있다. 그늘에서 말린 연꽃에 뜨거운 물을 부어 이를 차 대신으로 마시면 자양강장 효과가 있다.

◎ 연뿌리 : 연뿌리는 맛이 약간 달고 떫은맛이 나는데 반찬으로 늘 먹으면 식욕증진, 강장, 강정의 효과가 있고 니코틴을 해독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지혈효과도 뛰어나 부인들의 갑작스런 자궁출혈이나 대변출혈, 이질, 소변출혈 등에 좋다. 연뿌리와 연밥으로 차를 만들어 먹으면 피부를 곱게 하고, 여드름이나 주근깨를 없애는 등 여성미용에도 효과가 있다. 우울증이나 신경쇠약에는 연뿌리를 생즙을 내어 하루 두 번 한 번에 한 컵씩 먹으면 효과가 있다. 연뿌리의 주성분은 녹말이지만 아스파라긴, 아지닌, 티록신 등의 아미노산과 레시틴, 펙틴이 많이 들어 있다. 특히 크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이라는 물질은 흑갈색으로 쉽게 변하게 하는데 이를 막으려면 식초에 담가 요리하면 된다. 연뿌리를 삶을 때에는 살짝 삶는 것이 좋으며 이때 식초를 넣어 삶으면 나쁜 맛도 없어지고 빛깔도 선명해진다. 연뿌리의 끈끈한 성분은 단백질과 당분이 결합된 것으로 이 끈끈한 물질을 이별을 서러워하는 남녀의 정으로 옛 사람들은 비유하기도 했다.

연잎밥 만들기

연잎의 그윽한 향기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연잎밥!!! 소중한 인연이 찾아오면 꼭 드리고 싶은 연잎밥을 소개합니다.

재료 – 연잎4장, 찹쌀, 은행50g, 잣30g, 호두50g, 흑미 조금, 연자

1. 연씨는 단단한 껍질을 벗기고 반으로 쪼개 배아를 떼어낸 다음 물에 불려둔다.
2. 찹쌀과 흑미는 깨끗이 씻어서 1-2시간 불려둔다.
3. 은행은 껍질을 벗기고, 잣과 호두는 정갈하게 손질하여 준비한다.
4. 준비해 놓은 재료를 고루 섞어서 찜통에 애벌 찐다. 김이 오르면 중간에 한 번 섞어서 골고루 익게 한다.
5. 찰밥이 쪄지면 연잎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없애고 펼친 다음 찐 찰밥을 얹어서 남은 여분으로 감싸면서 찜통에 다시 한 번 찐다.(15-20분정도)

연꽃 기르기

이제는 가정에서도 연꽃씨앗을 직접 발아시켜 손쉽게 기를수 있습니다.

1. 먼저 니퍼나 뺀치로 연씨앗의 한곳에 흠집을 내어 물이 속살부분으로 스며들게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딱딱한 겉껍질만 제거하면 됩니다. 너무 세게해서 속살의 흰색부분이 다치지 않게 주의하십시오
2. 물컵이나 페트병속에 연씨앗을 담아 양지 바른곳에 놓아두시면 약 1주일 지나서부터 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3. 처음에 넣었을때는 물위에 뜨는것도 있으나 조금 지나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4. 시간이 지나면서 물의 색깔이 뿌옇게 흐려지게 되는데 신경쓰지말고 가끔씩 물을 갈아 주시면 되는데 될수 있으면 기온이 올라가는 낮에 갈아주시는게 좋습니다.
5. 연씨앗 한알에서 싹이 3개쯤 돋아나기 시작할 때 연씨앗 부근에서 하얀 뿌리가 돋아나기 시작합니다.
6. 싹이 물위로 솟아 손바닥만한 뜬잎이 생기면서 하얀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흙이 있는 용기에 옮겨 심으면 됩니다.
7. 옮겨 심을때 용기는 좁고 깊은 항아리보다는 얕고 넓은 것이 좋습니다. 흙은 깊이는 30cm 이상이면 되고 물은 흙에서 10-15cm 정도 깊이면 됩니다.

연씨앗 구입문의는 : 02)3412-1281

아름다운 화색의 **다양한 품종**을 선보입니다.

백 합시리즈

철쭉사이 혼성식재

■다양한 품종으로 백합원 조성가능
■숙근초 사이 혼성식재 가능
■고성종은 철쭉사이 혼성식재하면 좋습니다.
(봄에는 철쭉을 여름에는 백합을–)
■왜성종은 화단, 분경용으로 안성맞춤

백합 SET 판매

구분	품종당 수량(주)	총수량(주)	총금액(원)
20품종	40	800	950,000
20품종	20	400	600,000
20품종	10	200	400,000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구입문의 : 02)3412-1281~2

특집 한국형 암석가든 ARI 가든 Plant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게 조성되는 한국형 암석가든 ARI 가든. ARI 가든에는 기본적으로 약 70종 이상의 소재가 식재되어진다. 이 소재들은 전체의 경관에 알맞게 디자인되어 일심동체가 되어 시기별로 다양한 경관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하나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약방의 감초라고나 할까. 여기 ARI 가든에도 반드시 들어가야할 감초들이 있다. 이들 품종군을 소개하고자 한다.

구슬갓냉이

이른 봄에 꽃을 피우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잎이 은회색으로 질감이 뛰어나 주위의 돌들과 잘 어울린다. 포복성의 눈구슬갓냉이와 잎이 넓고 직립인 산구슬갓냉이가 있다.

산구슬갓냉이

눈구슬갓냉이

돌꽃잔디

4월말부터 5월까지 하얗게 꽃이 피고 가을에는 빨간 단풍이 아름다운 작고 아기자기한 암석가든용 식물이다. 겨울에도 상록을 유지하며 습에도 강한 강건함을 갖고 있다. 돌틈이나 2~3포기를 모아심으면 좋다.

너도부추

늦봄에서 초여름에 걸쳐 진분홍색또는 흰색꽃을 피운다. 솔잎같은 잎속에서 꽃대가 여러개 올라와 귀엽고 동그란 꽃을 피운다. 큰너도부추는 꽃과 잎이 크고 비단너도부추는 종류가 다양하며 꽃이 지고 난 후에도 조밀하고 푸른 잎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적엽비단너도부추

구름비단너도부추

구름비단너도부추

큰너도부추

비단너도부추

바위솔

건조에 강하고 작고 앙증맞은 모습을 갖고 있어 ARI가든에 앞쪽이나 돌틈에 심으면 효과적인 식물이다. 식재할때는 1품종보다는 다양한 품종을 적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세덤

건조에 강하고 돌과 잘 어울리는 소재로 어느 품종을 적용해도 무난하다. 포복형, 반포복형, 직립형 등 다양한 형태의 품종들을 조화롭게 배치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큰원의비름 만추

다람쥐꼬리세덤

상록애기기린초

붉은애기원의비름

애기세덤

단풍세덤

블루애기세덤

지네발세덤

백두산애기세덤

은쑥

은쑥은 잎이 전체적으로 은색을 띄어 잎의 질감이 매우 뛰어나고 지피력이 우수한 식물이다. 실은쑥은 잎이 가늘고 부드러워 실크와 같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소재이다. 식물의 자라나는 형태가 아름다운 최적의 ARI가든용 식물이다.

은쑥

실은쑥

해변국화

진회색의 잎은 질감이 매우 뛰어나며 주먹형의 노란꽃은 늦가을까지 유지된다. 건조에 강하고 병충해가 없는 매우 강건한 식물이다.

패랭이

패랭이류는 ARI가든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로 꽃잔디에 이어 봄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전반적으로 꽃이 매우 화려하고 핀쿠션 등 품종에 따라서는 잎의 질감이 뛰어나 잎 자체만으로도 관상가치가 매우 뛰어나기도 하며 돌과도 잘 어울리는 소재이다.

패랭이 쿠션

왕상록패랭이 장이슬

패랭이 핑몽

잔디패랭이

상록잔디패랭이

Uri03

꽃잔디

추식구근을 ARI가든에 식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식물이다. 앞쪽에 배치되어 분홍, 진분홍, 빨강, 연보라, 하얀색 등 다양한 화색을 선보인다.

꽃잔디 레드아이

꽃잔디 에메랄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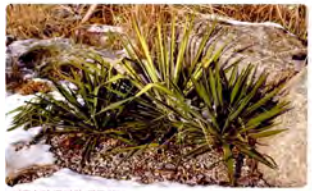
꽃잔디 레드킹

꽃잔디 화이트

유카

ARI가든에 입체감을 살려주고 상록성의 잎이 돋보이는 식물이다. 무늬종은 환금색의 무늬가 투명하고 질감이 좋아 보통 독립적으로 식재를 하면 좋다.

실유카 브라이트에지


겨울속의 유카와 골든써드

실유카 골든써드

돌장미

회녹색의 상록잎은 질감이 매우 뛰어나고 윤기가 흘러 ARI가든에 적합한 식물이다.
꽃은 크기는 작지만 화수가 많아 풍성한 느낌을 주고 빨강, 하양, 노랑 등 다양한 화색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식물관리 스케치

연재 – 3

겨울도 시시히 물러갈 채비를 하고 있다. 봄 식물이 벌써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들만큼 따스한 햇볕이 겨우내 얼은 땅을 조금씩 조금씩 보이지 않게 녹이고 있다. 이번 식물관리 스케치에서는 조금 이른감이 있지만 꽃잔디, 패랭이 등 봄꽃식물에 대해서 봄맞이를 가려고 한다. 스케치하실 준비가 되셨는지...

– 편집자주 –

◎ 퇴비살포

모든 식물은 지력, 즉 토양속에 충분한 양분이 있어야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병충해에 잘 견딜 수 있고 크고 아름다운 꽃도 피울 수 있다. 인간이 충분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하여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이치와 크게 다를바 없다. 해가 지나면서 토양의 지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양분을 공급해주어야 한다. 양분을 공급하는 시기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때가 겨울 휴면기이다. 퇴비로는 흔히 부엽토, 잘 완숙된 돈분 등을 사용하면 좋고 식물생육기에는 아무래도 살포하고 난 후 며칠간 지저분해보이기 때문에 식물커팅시기에 깔끔하게 커팅하고 퇴비를 살포하거나 위에서 말했듯이 겨울휴면기에 살포하면 미관상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사진1

겨울 휴면기에 퇴비살포는 비단 봄꽃식물에 국한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식물에 충분하게 살포해주는 것이 그해 생육에 도움을 준다(사진1).

◎ 꽃잔디

꽃잔디는 제일 먼저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이다. 말그대로 꽃밭석을 이루며 봄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흔히 식재해왔던 일반 꽃잔디는 꽃이 지고 난뒤 잎이 지저분해지는 단점이 있다. 그 이유는 잎자체가 늘어지며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하고현상이 일어나고 식재된지 몇해가 지나 찌들은 경우에 안쪽이 질크러지기 때문이다. 이런점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찌들은 경우 꽃이 지고난후 가위로 중간중간 솎아내어 통풍이 잘 이루어지게 하고 장마전후로 살균제 처리를 하면 좋다.

일반 꽃잔디의 이러한 단점을 커버해줄 수 있었던 품종이 2002년도에 출시한 개량꽃잔디(꽃잔디 레드킹)였다. 꽃이 크고 진분홍의 화색은 더욱 화려할 뿐만아니라 잎의 절간이 짧고 진녹색의 깔끔한 형태를 항상 유지하여 꽃이 지고 난후에도 푸르름을 선명하게 유지한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없이 아름다운 꽃과 잎을 감상할 수 있어 큰인기를 누렸던 품종이었다.

◎ 상록잔디패랭이, 잔디패랭이

잔디패랭이

두 품종 모두 장기개화형의 패랭이 품종이기에 충분한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좋은 꽃을 볼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꽃이 만개하고 초여름으로 들어서면서 꽃이 절때쯤 꼬투리가 지저분해 보이므로 전정가위 또는 동력전정기로 전정해주면 깨끗해 보인다(사진2). 이때 식물체 주변에 퇴비를 살포해주면 다음 개화시 좋은 꽃을 볼 수 있다. 식재시 유의할 점으로는 토양이 배수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패랭이류는 습에 약하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장마기에 잘 크러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장마이후에 이상징후가 보이면 지표면과 맞닿아 있는 식물체 부위를 살펴보자. 이때 하얀 실처럼 엉켜져있는 곰팡이가 있거나 썩어들어가는 흔적이 보이면 바로 적용살균제를 식물체 위와 아래부분에 골고루 살포해주어야 한다.

사진2

가끔 도로변 또는 중앙분리대 등에 식재된 후 첫해는 좋았다가 갑자기 다음해에 생육이 안좋은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이럴때는 극건조가 오지 않았는지, 충분한 양분공급을 해주었는지, 배수가 원활한지 반드시 체크해보아야 한다.

◎ 매발톱

봄식물로 화단용, 분화용으로 많이 심는 대표적인 식물이 매발톱이다. 우리나라 자생종으로 하늘매발톱이 많이 식재되어지는데 보라색꽃이 매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하얀 백분이 묻은 듯한 잎도 관상가치가 뛰어나고 생육이 강건하기 때문이다. 꽃이 지고난후 잎이 무성하면서 지저분해지며 과감히 잎 전체적으로 잘라주면 며칠이 지나면 바로 새순이 올라와 가을까지 잎을 감상할 수 있다. 그리고 메카나, 스코맨발톱 등 외국품종의 매발톱류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매우 화려하고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반면에 일부 품종은 꽃이 지고난 후 생육면에서는 자생종 매발톱류에 비해 약한면이 있어 특히 장마전후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카나매발톱

날이 더워지면서 잎과 줄기에 진딧물이 생기므로 잘 관찰하여 방제해주어야 한다.

◎ 기타 봄꽃식물

할미꽃은 지난해 우리넷(11,12월호 스포트라이트)을 참고하기 바라고 그 이외에 샤스타데이지, 숙근시루베아 등은 꽃이 지고 난뒤에 반드시 꽃대를 제때 잘라주어야 주변의 다른 식물이 꽃이 피었을때 전체적으로 지저분하지 않고 깔끔함을 유지할 수 있다.

음지의 봄식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가류는 대부분 생육이 강건하지만 일반 아주가의 경우 여름에 탄저병이 자주 오기에 미리 예방이 필요하고 런너로 번식하여 주변으로의 침범이 많고 런너가 지면에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겨울을 나면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면의 단점을 극복해주어 관리면에서 용이하고 경관적으로도 더 뛰어난 왈아주가, 애기아주가, 주름잎아주가 등을 앞으로는 적용하기를 적극 권장해본다.

왈아주가

화려한 봄맞이

옥상, 암석 가든용 식물 [연재 – 17]

"숙근뽀삐"

금단의 꽃으로 여겨졌던 양귀비는 그동안 잘못 알려졌던 마약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이제는 중요한 조경용 소재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암석가든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빼놓을 수 없는 봄꽃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암석가든에 적용하는 숙근양귀비는 대표적으로 오리엔탈뽀삐(*papaver orientale*)와 아이슬란드뽀삐(*papaver nudicaule*)가 있다.

봄을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는 필수적인 소재로 유용하다.

아이슬란드뽀삐는 초장이 30~40cm로 아담한 형태를 유지하며 하나의 포기에서 여러개의 꽃대가 올라온다. 꽃의 색은 주로 노랑, 주황, 흰색이 혼합 되어 있고 꽃잎은 얇은 종이장 같다. 오리엔탈뽀삐는 키가 60~70cm정도 크게 자라며 꽃이 크고 매우 화려하다. 두 종류모두 암석가든에서 봄을 화려하게 돋보이게 하는 필수적인 소재로 유용하다.

아이슬란드뽀삐

숙근뽀삐는 5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고 꽃이 지고 난뒤 날이 더워지면서 잎이 하고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처음 경험하는 경우 고사한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것은 더위에 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해 봄 그 자리에 다시 잎이 나오며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물론 습에 약하여 물빠짐이 좋지 않으면 장마기에 고사하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어 토양의 배수가 잘 되어야 식물의 생육에 좋다.

오리엔탈뽀삐

VIEW 가이드 연재 – 1

View 가이드 코너에서는 세계 각국의 원예, 화훼, 조경을 관련한 모든 박람회, 식물원을 비롯하여 유명공원 까지도 일반적이지만 찾기 힘든 정보를 제공하여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정보 공유가 되길 바란다.

– 편집자주 –

박람회편–❶

◎ 암스테르담 원예 박람회(International Horti Fair)

- 개최국 : 네덜란드
- 전시장소 : 암스테르담 – Amsterdam RAI Exhibition Center
- 전시기간 : 2008년 10월 14일~10월 17일
- 전시규모 : 50개국의 약 1,000개 업체 참가 / 약 50,000여명 참관
- 공식사이트 : http://www.hortifair.com
- 전시품목 : 원예, 조경, 농업, 임업, 축산, 화훼 및 원예관련 제품, 원예용기계 및 트렉터, 각종 장비류 전반

International HortiFair는 NTV Int'l Horticultural Trade Fair(since 1972)와 Amsterdam Flower Trade Show(since 1962)의 두 박람회가 1997년 통합된 세계적으로 가장 큰 원예박람회이다. International HortiFair의 참관은 원예, 화훼, 조경 관련업계 종사자들에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이다.

◎ 첼시 꽃 박람회(Chelsea Flower Show 2008)

- 개최국 : 영국
- 전시장소 : 런던 Royal Hospital
- 전시기간 : 2008년 5월 20일~5월 24일
- 전시규모 : 15개국의 약 600업체 참가/165,000여명 참관
- 공식사이트 : http://www.rhs.org.uk/chelsea/2007/index.asp
- 전시품목 : 절화, 종자, 구근, 묘목, 장식용 각종식물/화분식물, 꽃

첼시 꽃 박람회는 왕립원예협회에서 주관하는 여러 축제 중 하나로 다양한 꽃과 식물을 접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이다. 첼시 꽃 박람회는 1913년 이후 매년 5월이 되면 어김없이 4일간 로얄 호스피탈의 정원에서 개최되고 있어 이 지역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으며, 세계 원예산업 발전의 산증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원래 이 행사는 1862년 켄싱톤에서 열렸던 '그레이트 스프링 쇼(Great Spring Show)'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 중국 북경 원예 박람회(Hortiflorexpo CHINA 2008)

- 개최국 : 중국
- 전시장소 : 북경 Exhibition Center
- 전시기간 : 2008년 4월 9일 ~ 4월 12일
- 전시규모 : 24개국의 약 360업체 참가 / 16,000여명 참관
- 공식사이트 : http://www.hortiflorexpo.com
- 전시품목 : 절화, 종자, 구근, 묘목, 장식용 각종식물/화분식물, 꽃잔디, 관목, 조경 디자인 등 / 유전학, 조직배양, 식재기술, 비료, 배양기술, 해충방제 등 / 온실, 온도조절 설비, 관개시스템, 포장기계, 식재기계, 원예기계, 운송설비 등 / 원예용 각종 악세사리, 조명, 가구, 공구, 분수 등 / 각종 화초 재배 전문가용 필수품, 데코레이션, 드라이 플라워, 실크 플라워, 화분, 꽃병 등 / 점포 디자인 및 디스플레이, 포장재료, 출판물, 웹사이트 등

중국에는 원예, 화훼, 조경 관련 박람회가 무수히 많다. 그 중 Hortiflorexpo CHINA박람회는 화초/원예/조경/잔디 관련 박람회 중 중국 최고의 전문 박람회다. Hortiflorexpo CHINA는 상해와 북경에서 순회 개최되며 당 박람회는 새로운 품종과 기술 및 설비를 선보임은 물론 업체간의 성공비지니스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장이 될 것이다.

◎ 동경 국제 원예 박람회 IFEX(International Flower Expo Tokyo)

- 개최국 : 일본
- 전시장소 : 동경 – Makuhari Messe
- 전시기간 : 2008년 10월 30일~11월 1일
- 전시규모 : 25개국의 약 600 업체 참가 / 20,000 여명 참관
- 공식사이트 : http://www.ifex.jp/english/
- 전시품목 : 절화, 종묘, 종자, 구근 등 원예작물, 장식용 원예, 정원용품, 조경용품 등

IFEX는 매년 1회씩 개최를 하며 2008년을 5번째로 맞이하는 역사가 길지 않은 박람회이다. 하지만 IFEX는 원예, 화훼, 조경의 선진국인 일본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향후 5년 안에 원예분야에서 긴 역사를 가진 유럽의 박람회에 뒤지지 않은 박람회로 성장할 가능이 크다.

벽화수
(碧花水)

우리꽃이
피었습니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 우리꽃 02)3412-1281~2